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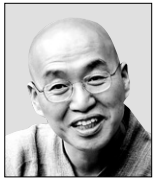
중복맞아 노인정에 삼계탕 보시
현성정사 회주 현성 스님은 7월 23일
중복을 맞아 탁동·신촌 노인정 150명
어르신에게 삼계탕을 보시했다.



화엄장학회 장학금 전달
화엄장학회 이사장 화승 스님(인천
약사사 주지)은 7월 10일 약사사에서
중·고교생 90명에게 2013년 상반기
장학금 2250만원을 지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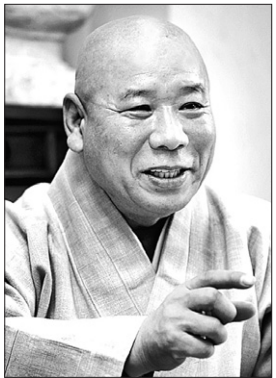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외국
인 대상 템플스테이를 위한 자원봉사자
를 모집한다. 자격은 만18세 이상이어
야 한다. (02)768-8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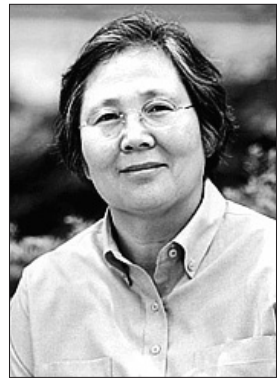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9월 13
일까지 영상강좌로 진행되는 가을학기
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68-
8524

제2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

예술상에 동성 스님... 학술 박동춘 소장



동성 스님



박동춘 소장

제22회 행원문화상에 예술 부문에 동성 스님, 학술 부
문특별상에 박동춘 동아시아문화 연구소 소장이 선정
됐다. 예술상 수상자 동성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
화와 달마도를 비롯한 선화창작으로 시대적 가치를 표현
해 포교해 왔다. 또한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중국, 몽골,
인도 등 해외에서 수많은 개인전을 개최 한국 선화는 물
론 불교를 해외에 널리 알렸다. 대표작으로는 '달마도'
'부처님' '미소동자' 등이 있다.

또한 학술부문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동아시아문화
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은 저서 <초의선사의 차 문화연구>
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 소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단
행본으로 펴낸 이 책은 2011년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
다. 박 소장은 초의선사의 차 문화 전반을 연구, 한국 차
의 우수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박사논문으로 완성했
다. 직접 만든 차를 스님들과 사회각계에 보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도 있다. 현재 동국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학술부문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금300만원이 각각 주어지며 시상식은 9
월24일 여삼동 대러도에서 개최된다.
정혜숙 기자

“불교계 언론 독립성 확보에 노력”

불교 전·현직 언론인 모임 ‘인사클럽’ 창립

불교계 전·현직 중진 언론
인 모임이 출범했다.

불교 전·현직 중진 언론인
모임 ‘인사클럽(회장 윤정광)’은
7월 22일 동산불교대학 2층
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참가자들은 창립선언문
을 통해 “불교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의
진정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
한 현실적 대안 마련과 한국불
교의 지표를 상징하는 사회적
토론을 위해서도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광 초대 회장(사전 아래)
은 인사말을 통해 “인사클럽이
종단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정
론직필을 펴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며 “인사클럽이 후배 기자
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바람막
이가 되고 등불이 돼 후원자가
돼 오욕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한국불교 1600년을 펼 수 있게
밀거름이 돼자”고 강조했다.

불교계 인사들의 격려도 이

어졌다.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
은 “종단 권력을 비판하고 우리
내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
속의 불교언론이 되는 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
혔다. 불교언론 1호기자 송재운
교수, 김종구 회장, 정병호 총장
의 격려사가 있었다.

인사클럽은 총회에서 정관을

7월 22일 창립총회 개최
초대 회장에 윤정광 씨

통과시켰으며, 감사에 김형균
불지사 대표와 이준엽 호남불
교 대표를 선출했다. 운영위원
회는 회장 윤정광, 총무 하춘생,
교무 정성운, 기획 김종만, 섭외
변대용, 편집 이학중으로 구성
됐다.

인사클럽은 향후 △월 1회 회
보 발간 △시론·성명 발표 △주
요 인사 초청 토론회 △관련 세
미나 개최 △인문 및 유적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인사클럽은 7월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
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사클럽에는 윤정광 前 불
교·법보신문 논설위원, 양범수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진, 최희경 분지
이사, 김형균 불지사 대표, 이학
중 미디어부다 대표, 김종만 불

교저널 편집장, 변대용 불교TV
총괄국장, 하춘생 우성불교학콘
텐츠연구소장, 이준엽 호남불교
대표, 정성운 불교포커스 주간,
신원식 중도기획 대표, 사기순
민족사 편집주간, 김봉래 불교
방송 총괄부장, 박관우 불교방
송 보도국장, 남선 불교방송 기
자, 김윤희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 등 불교계 전·현직 언
론인 21명의 정회원과 김윤세
씨 등 명예회원 17명, 주영운 행
원재단 이사장 등 특별회원 6명
이 참여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

“제 원력이 불교 발전의 씨앗이 된다면...”

정목 스님, 저서 인세 9000만원 ‘통근 기부 릴레이’

‘힐링’이라는 트렌드를 선도
해 나가고 있는 ‘유나방송(www.
una.or.kr)’ 진행자 정목 스님(www.
각자 주지)이 최근 불교 발전과
자비 실천을 위한 ‘통근 기부’를
이어 화제다. 스님의 저서 <달
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의 인
세 9000만원을 전부 불교와 사회
에 환원했기 때문이다.

정목 스님은 7월 22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조계종 교육원에 청
년출가 진흥을 위한 승가교육
진흥기금 2000만원을 전했다.
21일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소아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
의 수술비로 2000만원을 지원
했으며, 동국대에도 장학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런 기부 릴레이를 할 수 있
게 한 원동력은 스님의 포교와

자비 원력에서 비롯됐다. 수 년
전 마음공부 명상CD를 세상에
내놔서, 중·고등학교 선생
님과 의사들이 스님을 찾아왔
다. 스님의 마음공부 명상CD를
수업과 치료에 사용해 본 사람
들이었다. 모두 청소년들과 환
우들을 위한 명상CD를 제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어떻게 도
울까’라는 스님의 고민은 그때
부터 이어졌다.

문제는 제작 비용. 부처님을
예경하러 온 신도들에게 보시
와 화주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 정목 스님의 평소 소신
이었던 만큼 다른 방법을 생각
했다.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SNS를 통해 올렸고, 사람들은
스님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시
작했다. 이 같은 소통의 편린들
은 곧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베스
트셀러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아프리카 학교 건립부터
출가 진흥 기금까지 쾌척
환우 등 위한 명상CD 제작

않다’가 탄생했다.
마련된 인세를 의미있게 회
향해야 했다. 예초 책을 출간했
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었다. 환우와 청소년 명상CD 제
작 비용을 산출해보니 생각했
던 것보다 많이 듣지는 않았다.
스님은 최소한의 제작·배포
비용만을 남기고 전부 인세를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불교는 이제 청년들과
호응해야 합니다. 이번 2기 출가
학교에서 강의 하니 제 마음
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불교에 있어야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출가진흥
기금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실제 스님의 이번 기부는 어
린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초
점이 맞춰있다. 아프리카 학교
건립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
국의 오지 청소년을 돕기 위함
이었다. 17번째 매년 1억여 원
씩 지원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
소아암 기금도, 어린이와 청년
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
람에서 이뤄진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불교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불교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이 제 포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생명나눔 제1회 생명존중강좌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7월 23일 안국선
원 교육관에서 제1회 생명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장기기증과 자
살예방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조원규 교수의 ‘건
강한 삶, 행복한 삶’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의 ‘내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 △생명나눔 부산본부 박동범 사무국장의 ‘생
명존중사상’의 발표로 이어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용호복지관 장수사진 전달식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7월 20일 지역 저소득층
노인 20여명에게 장수사진(영정사진)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달된 장수사진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 여학생의 도
움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Mercersburg Academy 9학년(우리나
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유휝희(17세)양은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봉사활동을 찾던 중 나이가 든 저소득층 노인들이 자
신의 영정사진이 없어 안타까워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머니
와 함께 참여하게 됐다.

유휝희 양은 “평소 취미 활동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기뻐하시는 걸 보니 오히려 내가 더 행
복하다”며 “앞으로도 방학 때마다 찾아와서 더 많은 분들에게
사진도 찍어 드리겠다”고 봉사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군포장애인복지관 ‘사랑의 쌀 나누기’



군포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용철)이 7월 23일 국제로타리클
럽3750지구 산본로타리클럽(회장 문성제)으로부터 저소득 중
증 재가장애인을 위한 쌀 210kg을 전달받았다. 이는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군포시장에이종합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에 쓰여진다.
정혜숙 기자

Advertisement for Nanya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t features a large header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and '중국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The ad lists 5 categories of recruitment: 1. 모집요강 (Recruitment Details), 2. 학교소개 (School Introduction), 3. 지원자격 (Application Qualifications),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Application Form and Admission Method), and 5. 문의처 (Inquiry).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university and details about a '65 이상 승려' (Monks 65+) fund-raising event.